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문화·예술 환경조성 지원방안

황익주*

본 연구에서는 전방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는 육군 병사들이 병영생활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하나는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전방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후자의 방향에서의 지원 방안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으로 지역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이를 지역 내 주둔부대의 병사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들에 강조점을 둔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병영에 새로이 도입코자 하는 문화예술 관련 제도들이 진정으로 병사들의 복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주제어: 방영문화, 문화 예술 환경, 지역문화센터

1. 발상의 전환을 환영하며

문화예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사회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문화예술 향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인류학, 스포츠인류학, 사회문화론, 유럽문화연구 등이다(연락처: 전화 880-6420, e-mail: ikjhwang@snu.ac.kr).

한국의 경우에도 1972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5년부터는 ‘한국예술위원회’로 개편)이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주관해 왔으며, 1990년부터는 ‘문화부’(1993년부터는 ‘문화체육부’, 다시 1998년부터는 현재의 ‘문화관광부’로 개편)가 하나의 독립된 정부 부처로 신설되어 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해오고 있다.¹⁾

그러나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정도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빈곤층은 중산층에 비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훨씬 적게 누리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신도시의 주민들은 역사가 오랜 도시들에 비해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여러 모로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²⁾ 그런가 하면, 사회의 몇몇 특수영역들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그 영역의 존재의미의 일부인 양 생각되어 오기도 하였다. 교도소는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죄를 지은 대가로 신체의 자유까지도 구속당하는 징벌을 받고 있는 재소자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것이다.

군대 역시도, 비록 교도소에 비하면 그 정도는 덜하겠지만, 문화예술과는 단절되는 것이 불가피한 특수영역의 하나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목숨이 내걸린 전투에 임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체력단련은 필수적인 일인 반면, 문화예술은 ‘잡념’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병영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병영생활과 문화예술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진 주된 이유는, 아마도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인적 자유를 전제로 하는 활동인 반면, 병영에서의 병사라는 존재는 개인성이 거의 무시된 채 단지 군대 조직의 일원으로서만 인식되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발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것이 미군 병사를 지칭하는 용어인 GI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국민적 의무에 따라 징집되어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을 총칭하는 속어로서 유래한 것인데, 현대 미국 사회의 세대별 구성을 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af.or.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참조.

2) 필자는 한국의 신도시인 성남시와 영국의 신도시인 밀튼킨즈의 문화향유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익주(2002) 참조.

하는 맥락에서는 ‘GI세대’라 하여 1900년에서 1924년 사이에 출생한 미국의 건설자 세대를 지칭하기도 한다(Strauss & Howe, 1991 참조). 필자가 주목하려는 바는 이 용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government issue, 즉 ‘관급품’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소유물이라고는 없는 존재, 나아가 어쩌면 그 신체까지도 국가에 귀속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GI라는 용어의 어원 속에 담겨져 있는 셈이다. 비록 이런 식의 용어는 따로 없더라도, 한국의 군대 사회에서 병사들의 개인성을 부정하는 경향은 미국의 군대 사회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맥락을 감안하건대, 본 심포지움에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육군에서 병사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병영에도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선하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발상의 전환이며,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군을 구성하는 병사들의 대다수는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자의 인생 중 2년여의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권(citizenship) 보유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사로서 복무하는 동안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권리 내지 자유 혹은 취향이나 희망사항 중의 어떤 것들에 대해 제한을 받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편 국가로서는 병사들의 시민권적 권리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경주하여 왔으며, 금번에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일도 그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군 전력의 정신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사기’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병영문화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종전과 같이 상급자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에 연관하여 벌어지는 기합이나 구타도 묵인되는 권위주의적 병영문화가 더 이상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군대라는 계급적 위계조직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민

주적인 성격을 지닌 병영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군복무를 위해 보내는 기간은 개개 병사들의 사회생활의 궤도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된 것,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회피하고 싶은 일종의 ‘암흑기’ 와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에 반하여, 오늘날은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병사들이 각자의 사회생활의 궤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탈되었다는 느낌을 덜 가지면서, 나아가 가능하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이 좀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가지면서 병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키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육군의 새로운 노력은 바로 이처럼 그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변화된 인식의 부산물이라고 하겠다.³⁾

2. 논의의 기본적 관점 및 범위

필자에게 본 발표가 요청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산하의 연구소들과 연관된 분과학문들 가운데서 ‘문화’를 중심개념으로서 다루는 것은 인류학이라는 점이였다. 하지만 요청된 발표의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 인류학 전공자인 필자로서는 ‘병영문화’라 할 때의 문화 개념과 ‘문화예술’이라 할 때의 문화 개념 사이의 괴리가 금방 눈에 들어왔다. 바꿔 말하자면, 병영에서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병영에는 문화가 없다”고 흔히 말하는

3) 부분적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의 대부분이 이른 바 ‘신세대’ 젊은이들로서 개성을 중시하고 자유분방하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권위에 대해 맹목적으로 복종하려 들기보다는 매사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까닭에 병영생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물질적 및 정신적 여건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군 조직구성 상의 인구학적 변화에 수반되어 생겨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남에 있어서 근년에 병영 내부에서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까지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촉매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논평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지식 내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데, 인류학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것이 병영문화의 특성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심포지움을 기획한 육군 본부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더구나 발표준비를 위한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각종 자료들을 통해 우리 육군이 추구하는 바가 단지 병사들로 하여금 협의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병영문화 혁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육군이 추구하는 바는 병영의 전반적 분위기, 병사들의 행동양식과 태도, 체육 및 기타 형태의 여가 활동을 위한 여건, 병사들의 전반적 복지수준 등을 두루 개선하자는 것이다.⁴⁾ 이는 인류학의 학문적 정신에도 잘 부합하는 바이기에 필자는 이 글에서 병영문화 및 문화예술의 엄밀한 개념정의 문제는 논외로 삼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전공적 배경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전공하는 학문인 인류학의 기본적 관점 중의 하나로 총체론적 관점(holistic perspective)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생활맥락들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상호 연관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향을 가리킨다. 필자는 병영문화의 혁신이라는 목적을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좋아 보이는 새로운 정책적 제도를 선의로써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결과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를 기대하였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스트레스나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사태가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병사들에게 병영생활의 스트레스를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추가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검토 작업에서의 최우선적 과제는 병사들이 병영생활 속에서 가지게 되는 체감욕구(felt needs)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가운데서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욕구의 상대적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내는 것이다. 군

4) 2005년 12월 6일 자료 체결된 국방부와 문화관광부 간의 '문화적인 병영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대라는 특수조직의 본령을 유지하면서 병사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 시간대는 여가시간, 즉 현재의 주 5일 근무제 하에서 휴무일로 잡혀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축으로 하여 거기에 평일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난 후로부터 취침 직전까지의 약간의 자투리 시간들을 합친 것으로서의 여가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여가시간들에, 그 가운데서도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의 병사들이 진정으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는 선형적으로 문화예술은 좋은 것, 그것도 소위 '고급예술'이 대중예술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가치평가 하려는 태도이다. 그런 태도에 의거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고급예술을 직·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도 시키자는 식으로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럴 경우, 선의를 가지고 도입한 제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예로 전략해버릴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논법으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형태의 여가시간 선용방식이라고 선형적으로 가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병사들의 대다수는 한편으로 보면 유년시절부터 문화산업의 영향 속에서 자라난 탓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큰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로서 진정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체육 활동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런가 하면, 전체 병사들 중 상당히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학에서의 학업, 취업준비, 혹은 심지어 대학입시나 편입시험 준비 등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병사들이 병영생활에서의 여가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 체육 활동, 학습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활동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활동들을 각기 얼마만한 정도로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아주 최근인 2005년 말에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증진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한

국문화예술교육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군장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방안 연구』라는 조사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단히 많은 유익한 정보와 정책 제안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팀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보고서는 병영생활로부터 병사들이 느끼는 체감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내는 바탕 위에서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 제시된 정책제안들 중 어떤 것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타당성 내지 효율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만 주된 이유는, 애초 연구팀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지 자체가 체육 활동이나 ‘자기계발’(공부)에 관해서는 현재 부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선택지로만 처음에 한번 등장할 뿐 이후의 문항들은 모두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만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던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⁵⁾ 새삼 강조하지만, 문화예술 관련 활동만이 아니라 체육 활동 및 공부까지도 포함하는 병사들의 체감욕구에 대한 총체론적 관점에서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하여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증진 방안은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 관점이다.

한편, 이 글에서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필자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지역적 범위는 ‘전방지역’, 즉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육군 부대들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많은 병력들이 밀집배치 되어 있는 지역일뿐더러, 전방지역이라는 특성상 병영생활로부터 병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전방지역을 주요 목표지역으로 삼는 일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전방지역은 부대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이 후방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기반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 점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200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

5)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점도 상당한 편향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람』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전방지역이 대체로 문화기반시설이 덜 갖추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연 내지 연습, 그리고 전시 등 복합적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혹은 문화센터라는 형태의 기반시설이 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좀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방지역 중에서도 최전방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으로는 군 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의 경우가 최전방 지역은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으로는 시 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에 비해 훨씬 열악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서는 복합적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주둔 부대 병사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할 경우, 전방지역은 그 시설들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게 되는 특수한 현실여건도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비록 체육 활동이나 공부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병사들의 여가활동으로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선호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05년 말에 발간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보고서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욕구는 상당 정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병영에서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설문지 문항에 대해 60% 이상의 병사들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매우 관심 있다’ 17.1%, ‘관심 있다’ 44.5%). 이는 군 입대 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없다는 응답자가 61.5%에 달했다는 사실의 이면에 해당하는 것이다(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73). 이 두 가지 응답들은 결국 병사들이 병영생활에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해 보고자 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할 때, 병사들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기본적 방향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⁶⁾ 이하에서는 이를 크게 군부대의 영내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현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들은 거의 전부가 군부대의 영내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다. 이는 전방지역의 경우 토요일 오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의 형식으로 체육 활동과 더불어 선택되고 있기는 하나, 필자가 전방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역 내지 예비역 장교 및 사병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들은 바로는,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는 말하기 힘든 지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뒤에 언급할 군부대 영외에 입지한 복합적 문화예술 기반시설들이 건립되어 병사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주요 근거지로 널리 활용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나아가 그 이후까지도 영내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들은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이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휘관의 식견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병사들의 정신전력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휘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을 독려하는가에 따라 병사들의 참여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예하 병사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지휘관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교육이 각급 지휘관들로 하여금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한 특수한 지식이나 기능을 새로이 습득하도록 중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단지 병사들의 문화예술

6) 필자는 문화예술의 각 장르 혹은 분야별로 세분하여 각각에 관련한 환경조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비록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의 각 장르별로 어떠한 환경조성 방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2005)의 제5장을 참조 바람.

관련 동아리 활동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해주는 정신교육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하지만 지휘관의 식견보다도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훨씬 중요한 요인은 예산 부족에서 연원하는 기자재 내지 소품들의 부족 내지는 미비, 그리고 날씨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아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줄 시설공간의 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비교적 많은 기자재나 소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물놀이 동아리조차도 제대로 된 악기가 부족하여 대용품을 써가며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동아리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수의 혹은 고가의 기자재나 소품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들은 현재의 병영여건 하에서는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바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방부의 예산 편성에서 해당 항목을 증액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관광부의 예산 중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할당되는 부분을 군부중인 병사들에게로까지 확대적용 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함으로써도 가능할 것이다.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방안의 하나로 제안하고픈 점은, 특히 활동 자체가 지속되기 위해 초보자들에 대한 교육 내지 강습이 필요한 동아리 활동들의 경우, 부대의 병사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지식 내지 특기 보유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전문가적인 수준의 지식 내지 특기 보유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관심을 가진 초보자들에게 최소한도의 교육을 제공하여 동아리 구성원으로서 공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 내지 특기를 갖춘 사람들이면 된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강습을 외부로부터 초빙된 전문적 강사들에만 의존하려 하기 보다는 이렇게 군 내부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런 내부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일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가령 계급상 하급자가 상급자들에 대한 동아리 활동 관련 교육

7)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내지 강습을 맡게 되는 경우에도 동아리 활동이 전개되는 여가시간 동안은 물론 일과 시간 중에도 불만을 지닌 상급자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계급의 위계를 근간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충족되기가 결코 쉽지 않을 전제조건임이 명백한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적 방안들에 대한 탐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환경조성 지원방안

가. 지역문화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관련된 방안

영내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환경조성의 방안보다도 필자가 이 글에서 제안코자 하는 문화예술 환경조성 방안으로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방지역의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시설들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과 같은 인프라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필자가 병사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군부대의 영내에 건립하지 말고 전방지역의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건립하자고 제안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병사들이 대대 혹은 중대 규모에 해당하는 수많은 단위부대들로 나뉘어져 병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방지역의 현실 속에서, 각 단위부대들에 복합적 문화예술 기반시설들을 새로이 건립하려 할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에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시설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 각 단위부대 내에서 전개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하는 것들로 국한되기 십상이며, 훨씬 큰 규모의 모집단이 있어야만 활동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확보가 가능해지는 유형의 문화예술 활동들은 전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영화 감상 동아리는 대대 규모의 단위부대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결성될 수 있겠지만, 연극 동아리는 대대 규모의 단위부대 내에서는 결성되기 힘들 것이다.⁸⁾

셋째로, 전방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중심지들 자체가 복합적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시설들을 못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주둔하고 있는 각급 부대들의 병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을 하기 위해 병사들이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을뿐더러, 해당 시설의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일조를 함으로써 군과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방지역의 지역사회의 중심지에 새로이 건립될 이러한 복합적 문화예술 기반 시설은 과연 어떤 형태의 것이어야 할까? 이는 협의의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일 뿐 아니라 병사들을 위한 도서관 겸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담보하고, 특정한 체육 활동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병사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생복지 시설로서의 기능도 일부나마 담보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각종의 문화예술 관련 강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들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그에 더하여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겸하는 도서관도 있고, 그 외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영화관, 노래방,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그리고 넓은 주차장 등을 두루 구비한 다기능적인 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⁹⁾

일단 전방지역의 중심지에 이러한 지역문화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이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도 지역사회 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소속의 병사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전개되는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주요 거점 중의 하나로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중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주둔 부대 병사들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사전조율을 거쳐 주민들과 병사들이 함께 이용하는¹⁰⁾ 식의 운영패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8) 이는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하위문화 집단(subcultural group)들의 총수는 인구 10만의 도시의 경우의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에 달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Krupat, 1985: 54-6 참조).

9) 이 중 노래방,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등은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영화관은 외박을 나온 병사들뿐 아니라 영화감상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에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자는 취지는 지역 내에서 여행을 하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여행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럴 수 있으려면, 앞서 서술한 시설 규모로 보건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이들 지역문화센터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애당초 해당 지역사회들에 군 부대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조달된 것이므로 군에서 시설이용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공감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문화센터용 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은, 전방지역 주둔부대의 병사들을 ‘준(準)주민’으로 인정하여 주둔 병력의 수만큼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조달된 추가적 예산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지역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현재 이러한 방향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의 추진논리는 ‘군인 등 특수인구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5년도 기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30에 해당하는 3천 여 억원을 군 주둔에 따른 분권교부세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에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필자가 추가로 지적하고픈 사항은, 설령 이상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만약 해당 지역문화센터를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들이 역시 주말의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이는 지역사회와 군과의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방 지역의 주민 구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새로이 건립될 지역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자 하게 될 요일들이 언제 일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확인해보는 일도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사회와의 심각한 갈등 없이 새로 건립된 지역문화센터를 전방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 시설은 인근 부대들이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을 위해 할당될 수 있는 주말의 시간대가 종교 활동을 위한 시간대로 설정되어 있는 일요일 오전을 제외할 때 토요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일요일 오후

10) 가령 유명한 연극 단체나 음악단이 주말을 이용하여 순회공연을 왔을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등 3개의 소단위로 나뉠 수 있는 것에 상응하도록 지역 내 주둔 각급 부대들이 3개의 그룹으로 묶여져 각 그룹이 어느 한 시간대에 해당 지역문화센터를 이용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각급 단위부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령 토요일 오후에 지역문화센터를 이용하도록 배정된 단위부대의 구성원들은 토요일 오전에는 개인적으로 자유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영내에서 벌어질 체육 활동이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을 선택한 사람들은 영내에 남고 그 나머지 병사들은 차량으로 지역문화센터로 이동한 후, 그 안에서 다시 각자가 선택한 동아리 활동의 공간들로 분산되어 자신의 부대 및 타 부대들에서 해당 문화예술 동아리를 선택해서 온 다른 병사들과 더불어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3개의 가용한 시간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일요일 오후는 동아리 활동조차도 하지 않는 자유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병사들이 많을 것임을 감안컨대, 각 그룹들은 6개월 정도를 단위로 순환하면서 다른 시간대를 주말 동아리 활동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서술한 방식은 현재 전방지역의 여러 부대들에서 토요일 오전 시간대를 각종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지역문화센터라는 공간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 내 주둔 병사들의 수는 매우 많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각 단위부대별로 지역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말의 시간대는 정해지지만, 각 단위부대의 소속 병사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적 선호에 맡겨져야 한다.

새로이 전방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센터들을 중심거점(hub)으로 삼아 전개될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방안들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군부대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방향을 논의한 바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문화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전개되는 병사들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나 소품 등이 적절하고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병사들의 각종 문화예술 교육 내지 강습과 관련해서 전문적 강사들이 필요할 경우, 그에 필요한 인원 및 재정 지원도 문화관광부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문화교육 예산에 관련사항들

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단 문화관광부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지원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한국메세나 협의회라든가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등의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그들이 보유한 자원이나 노하우 등을 지원받자는 것이다. 끝으로, 병사들이 지역문화센터의 공연장이나 전시장 시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동아리 활동의 수행 성과를 다른 병사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공연이나 전시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나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지역문화센터가 병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방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건립되는 것인 만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문화 활동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나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유사한 지원들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기타의 방안들

지역문화센터의 건립에 비해 비중은 많이 작지만, 전방지역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 방안의 또 다른 가닥을 하나 추가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도서관 시설과 군부대가 보유한 병영문고를 결합하는 방안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목록을 병사들이 병영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 도서관들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신착도서 목록을 참조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이동도서관에 해당하는 군부대 차량이 해당 도서관을 찾아가 책들을 대출받아 병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읽고 난 도서의 반납도 같은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현재 전방지역에 위치한 공립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이 열악하고, 도서관 입을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함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둔 병사의 준주민화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도서관들도 지역 내 인구수가 늘어난 만큼 추가적 도서관 입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새로 건립될 지역문화센터 내에 들어설 도서관 자체를 기존의 지역사회 내 공립 도서관과 군 부대 내 '진중문고'를 통합하는 신개념의 도서관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병사들로서는 중대 내지 대대 단위로 상당 부분 중첩되는 도서들을 보유하면서 이용하는 현재의 진중문고 체제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도 많은 수의 장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보유 장서의 충수도 대폭 늘어날 뿐더러 좀 더 많은 신착도서들이 구비되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환경조성의 방안은, 최근 많이 늘어난 각종 지역축제들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에 병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역문화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든 아니면 군부대의 영내에서든, 병사들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축제에의 참여를 통해 군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을뿐더러, 원하는 병사들에게는 자신이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인정받음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계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제도들을 도입함에 있어서의 전제조건들

군의 정신전력의 증진에 병영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이 기여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전방지역에 지역문화센터들도 다수 건립되고 영내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공간들까지도 모두 충분히 확충된다고 가정해보자. 실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제도들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조건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새로운 제도들은 그 본래의 취지, 즉 소극적으로는 병영생활로부터 병사들이 느끼는 고달픔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는 병사들의 자기 계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병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들 전제조건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병사들이 어떠한 종류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또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에 참여할 것인가 혹은 체육 관련 동아리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¹¹⁾ 분대가 되었든, 소대가 되었든, 중대가 되었든, 혹은 그 이상 규모의 부대단위가 되었든 간에, 선택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대 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의사를 하급자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 자신의 개인적 선호에 어긋나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일부 하급자들에게 해당 활동은 자유로움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천으로 기능하게 된다.

둘째로, 선택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각 병사들의 완전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에 리더로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참여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감시자 내지 평가자가 따로 있어 그의 시선을 참여자들이 의식해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어떤 개인들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더러 자칫 군 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소정의 기간 동안 병사들은 개인적으로든 집합적으로든 자신들의 수행성과(performance)를 상급자나 지휘관에게 입증해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강습과 같은 형태의 교육적 성격을 띤 프로그램의 경우에서조차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병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발표회의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수행성과를 남들 앞에 공개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해당 개인들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

넷째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의 참여도나 성취도는 어떤 방식으로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단 지휘관 본인의 참여도나

11)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하는 일까지도 그것이 동아리 활동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에 난감함을 느낀다.

성취도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가 통솔하는 부대 사병들의 참여도나 성취도 역시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원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병들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지니는 자유 내지 자율성의 여지는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처럼 육군 내부에서의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승진을 둘러싸고 장교들 내부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여건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¹²⁾

이상에 열거한 네 가지 전제조건들이 과연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성격과 양립될 수 있는 것들인지 필자로서는 판단하기에 난감함을 느낀다. 특히 서구 문화에 비해 유난히도 집단주의적 태도와 위계질서에 대한 의식,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아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한 한국의 문화적 풍토 속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맥락 속에서 이들 전제조건들이 과연 수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들을 도입함을 통해 현재의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12)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필자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 (200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군 장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방안 연구》.
- 황익주, (2002),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질: 영국 밀튼킨즈 시의 사례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8집 1호. pp. 171-209.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caf.or.kr>.
- E. Krupat (1985), *People in Cities: The Urban Environment and Its Effe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 Strauss & N. Howe (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 New York: William Morrow & Co.

Policy Measures for the Innovation of Army Camp Culture Through the Creation of Culture/Arts-Friendly Environment

Ik-joo Hwang*

This study proposes two lines of policy measures which are aimed at the innovation of army camp culture by creating culture/arts-friendly environment in the frontline region, where the majority of the army camps are located but where the overall working conditions for the soldiers are the harshest. One line of policy measures is directed towards the support of various club activities taking place inside the army camp during leisure time, while the other is directed towards the support of the various projects for the creation of culture/arts-friendly environment in the frontline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emphasizes the latter line of policy measures given the poor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culture/arts activities in the local communities of the frontline region. Especially this study strongly proposes the construction of multi-purpose cultural centre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and the development of its management program, whereby not only the soldiers stationed in the army camps nearby but also the local civilians may efficiently use the newly-constructed facilit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four prerequisites to be met in order for the new policy measures to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everyday life of the soldiers instead of turning into a new source of distress.

Key words: army camp culture, culture/arts environment, local cultural centre

* Professor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ching & Research Area: urban anthropology, anthropology of sport, social differentiation, anthropology of Europe. Contact: 880-6420 (telephone) E-mail: ikjhwang@snu.ac.kr